사람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할말은 한다

11호

2019년 9월 5일 목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전화/920-5159

2019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조인식

2019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조인식이 지난 3일 오후 3시 의과대학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조인식에는 노사 대표위원인 이기형 의무부총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 고대의료원지부 노재옥 지부장 더불어 교섭위원으로 참가한 노사 간부들이 함께 자리했다.
잠정합의안 조인에 앞서 노사 대표위원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고대의료원 자율타결 결과가 보건의료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기점 될 것.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정신청 없이 자율타결을 하게 되어 기쁘다. 현재도 광주지역에서 조정신청을 내고 파업을 하는 지부들이 있는 반면에 고대의료원은 평화롭다. 하반기에는 제도적 정책적인 부분에 신경 쓰려고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등의 정책에 신경쓰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간호수가 및 야간간호 관리료등도 신설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 노사 정책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협의는 산별교섭과는 별개로 좋은 병원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이니 만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고대의료원이 보건의료와 노사관계를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하자"고 말하며 하반기 정책협의 제안과 고대가 노사 관계를 잘 이끌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기형 의무부총장, 7년만의 자율타결로 노사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다. 직원들에게 더욱 만족스런 결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기형 의무부총장은 "올 해는 처음 시작부터 교섭의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다. 또한 교섭 중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 노사가 공동으로 발주한 고려대학교 의료원 노사문화, 조직문화, 인

력문제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함께 듣기도 했고 7년 만에 자율타결을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다. 올 해 교섭 결과가 교직원들의 수고에 비해 만족스럽진 않으나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겠다." 고 말하며 직원들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피력했다.

이어 노측 위원인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은 "작년과 올 해 서울지역본부에서 파업을 하는 사업장이 없어졌다. 올 해는 고대의 모범적인 교섭으로 다른 병원들도 잘 풀린 것 같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도 고대가 역할을 잘 해 줄 것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노재옥 지부장은 "자율타결을 목표로 두고 교섭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직원들의 갈망이 높은 점이다. 이에 대해서 의료원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사가 신뢰를 쌓는 원년이라고 생각하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 관계가 축적되면 의료원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웅 의무기획처장과 김호용 사무국장도 교섭위원으로써의 올 해 교섭 소회, 내년의 교섭과 앞으로의 노사관계 및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하며 노사가 이해하는 과정을 잘 만들어 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2019년 산별현장교섭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노사 자율 타결의지와 신뢰를 쌓는 교섭으로 만들어가며 직원들의 요구가 담긴 요구안들을 노사가 이해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과정이 선례가 되어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이 직원만족과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교섭 결과에 따른 합의안은 조인식을 진행한 9월 3일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적용되며 10월 25일 소급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파견용역직 800여명 전원 정규직전환!

무기한 천막농성 120일 만에 마침표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비정규직(파견용역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던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설립안을 철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서울대병원 직접 고용 합의는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약 2년 만이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2017년 7월 이후 본격 투쟁에 돌입한 뒤 2018년 8월 노사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전면파업에 돌입한 뒤 11월에는 서울대병원 정규직분회와 함께 원하청 공동파업도 2차례 진행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고, 지난달 22일부터는 무기한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지난달 8월부터 집중교섭에 들어간 노사협의체는 9월에 들어서야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3일 "서울대병원과 파견·용역노동자들에 대해 전원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614명의 노동자가 11월1일자로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되고, 200여명의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들은 서울시와 합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던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받으며 이에 따른 복리후생도 차별없이 적용받게 된다.